

#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3년 7·8월 제65호

## ROAD TO PARIS

파리로 가는 길, 마지막 담금질  
한국 여자핸드볼, 11회 연속 올림픽 향해 출발!

## U19 REVIEW

적수가 없었다, 그러나 방심도 없었다!  
한국 여자 주니어, 퍼펙트 우승

## SPECIAL INTERVIEW

안지환 본부장에게 듣는다!  
통합리그, 어디까지 진행됐나

## HANDBALL ACADEMY

5년째 맞은 우수선수선발 측정,  
진지하고 치열했던 현장 속으로!

## COVER STAR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꿈을 꾸는  
핸드볼 삼남매 김태규·아영·태웅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Handball

핸드볼코리아

## KOREA

C O N T E N T S

2023년 7·8월 제65호

02



14



28



### 02 ROAD TO PARIS

파리로 가는 길, 마지막 담금질  
한국 여자핸드볼, 11회 연속 올림픽 향해 출발!

### 08 U19 REVIEW

적수가 없었다, 그러나 방심도 없었다!  
한국 여자 주니어, 퍼펙트 우승

### 12 U17 REVIEW

아쉬움 가득했던 U17 여자대표팀의 결승,  
결정적 순간들을 돌아보다

### 14 COVER STAR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꿈을 꾸는  
핸드볼 삼남매 김태규·아영·태웅

### 20 SPECIAL

가속 붙는 핸드볼 통합리그,  
2023-2024시즌 출범 전격음

### 24 SPECIAL INTERVIEW

안지환 본부장에게 듣는다!  
통합리그, 어디까지 진행됐나

### 28 INSIDE

장대비도 못 막은 핸드볼 열기, 뜨거웠던 태백  
제20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 30 HANDBALL ACADEMY

5년째 맞은 우수선수선발 측정,  
진지하고 치열했던 현장 속으로!

### 34 COURT SIDE

선수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책임진다  
광주도시공사 신동진 승무원

### 36 CLUB

부천시체육회 G-스포츠클럽의  
'풀뿌리 핸드볼' 씨앗 뿌리기

### 38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3년 8월 10일 | 통권 65호 |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기획 정규오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 파리로 가는 길, 마지막 담금질 한국 여자핸드볼, 11회 연속 올림픽 향해 출발!

한국 여자핸드볼이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 나간다. 헨리크 시그넬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치르는 실전 무대다. 5개국이 출전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된다. 2004년생 김민서부터 1988년생 김은아까지 올림픽 진출을 위해 진천에 다시 모인 선수들은 단단한 각오 속에 대회 준비를 마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1976년 몬트리올 대회부터 핸드볼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남녀를 통틀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팀은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유일하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2020년 도쿄 대회까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은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를 통해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올림픽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강이라는 자존심도 걸려 있어 더욱 중요하다.

### ‘실전모드’ 2차 강화훈련에서 나타난 변화는?

대표팀은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임 시그넬 감독과 진천선수촌에서 1차 강화훈련을 했다. 1차 훈련에서는 선수 개인별 몸 상태를 파악하고, 훈련 시스템의 적응도를 끌어올렸다. 1차 훈련 뒤 3주간의 긴 휴식을 거쳐 7월 10일 22명의 대표선수가 2차 강화훈련을 위해 진천선수촌에 다시 모였다. 이전 감독과 비교했을 때 3주의 휴식 시간은 조금 길었다. 시그넬 감독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자율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안겼다.

시그넬 감독은 “유럽에서는 이게 정상이다. 클럽, 대표팀을 오가면서 활동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 최소 1주일만은 온전히 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3주라는 긴 시간을 다 쉬라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에게 1주일 휴식 이후 남은 2주 동안에는 다음 훈련

을 위해 가볍게 몸을 끌어올릴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1차 훈련에서 체력과 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추며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파리올림픽 예선을 한 달여 앞둔 2차 훈련에서는 올림픽 예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실전 위주의 일정을 진행했다. 유례없는 올림픽 11회 연속 본선행을 향한 대표팀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그넬 감독은 “1차 훈련에서는 선수들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가까워지고 각자 부족한 부분을 훈련했다면, 2차 훈련은 본격적인 전술, 실전 훈련이다. 선수들의 장점을 내 전술에 더 녹이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 훈련과 달리 2차 훈련에는 선수단에 큰 변화가 생겼다. 포지션별로는 센터백에서 변화가 크게 두드러진다. 베테랑 김은아가 모처럼 대표팀 부름을 받았다. 1차 훈련에서 부상으로 이탈했던 강경민과 송혜수도 부상을 털고 진천선수촌에 합류했다. 기존에 대표팀에 합류해있던 주장 이미경과 김민서에 김은아, 강경민, 송혜수까지, 시그넬 감독은 각기 다른 장점의 5명을 무한 경쟁시켜서 전력을 끌어올릴 참이다. 다만, 김은아의 경우 무릎 부상이 완전히 나아 최종엔트리 승선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그넬 감독은 “센터백 포지션에 뛰어난 재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 훈련이 가능한 강경민과 송혜수는 대표팀 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다. 여러 선수를 다양한 상황에 기용하며 시스템과 조합을 맞춰나가고 있다. 김은아는 현재로서는 무리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커리어를 더 길게 가져가야 하는 선수다. 소속팀에도 건강한 몸 상태로 돌려보내야 한다. 계속 몸 상태를 지켜보면서 훈련 강도를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오사라가 제외되고 박새영, 정진희, 박조은이 경쟁하는 체제로 꾸러질 전망이다. 세 선수 모두 아직 젊고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서 경험은 적지만 리그에서 정상급 기량을 뽐내는 공통점이 있다. 시그넬 감독은 이들의 장점을 살려 골키퍼 자리를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골키퍼 국가대표 출신의 레전드 조은희 코치를 골키퍼 전담 코치로 선임한 것도 이들 3명의 능력치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2차 훈련의 핵심 키워드는 빠른 공수 전환과 수비 전술이다. 이 가운데 변형 수비를 펼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시그넬 감독이 2차 훈련에서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다. 시그넬 감독이 어떤 변형 수비를 구사하는지 선수들에게 직접 물었다. 센터백 이미경은 “수비 모양새는 기존과 큰 차이는 없는 듯인데 루틴이 다르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수비 방법이다. 새로운 수비 방법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골키퍼 박새영도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변형 수비에 적응하기 위해 손발을 맞추고 있다. 1차적으로 수비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골키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했다.

시그넬 감독에게 변형된 수비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핵심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수비(상대를 따라가는 수비 대신)다. 선수들에게 모든 훈련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끝까지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

면서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끔 괴롭히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끼리의 합을 맞추기 위해 꾸준한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역할을 잘 이해하고 경기에 나선다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실전 방불케했던 연습경기…

#### 절실한 대표팀의 몸부림

대표팀은 7월 20일과 21일 남자 U19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하며 실전에 대비했다. <핸드볼코리아>가 진천선수촌에서 지켜본 7월 21일, U19 대표팀과의 연습경기는 실전을 방불케 했다.

여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8월 19일부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일정이 시작되는 U19 대표팀은 여자 대표팀을 상대로 자신들의 플레이 방식을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대표팀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실전훈련이 필요했던 대표팀 역시 다양한 조합을 내세우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선수들은 연습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앙과 양 사이드를 이용한 고공플레이, 스피드 넘치는 속공 등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공격이 때때로 나왔다.

팀의 주축을 맡을 센터백 이미경은 다양한 형태에서 워그와 공격의 합을 맞췄고, 막내 김민서 역시 계속해서 외곽슛, 돌파를 시도하

며 자신의 상태를 체크했다. 김민서는 단신으로서 장신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 계속해서 연구하는 모습이었다. 마땅한 스파링 파트너가 없었던 대표팀으로선 좋은 훈련 상대였다. 시그널 감독은 다양하게 선수들을 기용하며 전력을 점검했고, 계속해서 조직력을 확인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물론 연습경기이기에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남자 성인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그널 감독은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많이 놀랐다. 덩치가 큰 남자 선수들을 상대로 과감하고 용감했으며 파이팅이 넘쳤다. 앞으로 터프한 경기들이 많은 텐데 이점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됐다고 본다.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연습경기에 응해준 남자 U19 대표팀에도 감사함을 전한다”고 흡족함을 드러냈다.

이미경은 “조직력이 점차 단단해져 가고 있다. 특히 어린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어린 선수들이 좋은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다. 내가 선배지만 어린 선수들의 대범함, 과감함은 배워야 할 점이다. 앞으로 더 기대된다. 새로 적응하고 있는 수비 시스템도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이 잘 맞아가고 있다”고 했다.

휴식을 반납한 채 주니어대표팀과 성인대표팀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민서는 “2차 훈련에 새로 합류한 언니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다”며 “대표팀에 센터백 포지션 언니들이 많이 있는데 각기 다른 장점의 언니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많이 배우고 있다. 감독님께서도 개개인의 능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 무대가 처음이어서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경기에 투입된다면 조금이나마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 막내답게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국 대표팀은 8월 초까지 이어지는 2차 훈련을 마치고 올림픽 예선에 출전할 선수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엔트리에 든 선수단은 8월 15일 결전의 장소 일본 히로시마로 간다.

### 급속도로 성장한 일본,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대해야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예선에 출전하는 팀은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이다. 이들은 파리올림픽 본선행 티켓 한 장을 놓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인다. 올림픽 10회 연속 본선행에 빛나는 한국으로선 대기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시아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해야 한다. 한국은 8월 17일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18일), 카자흐스탄(21일), 일본(23일)과 경기를 펼친다. 풀리그로 진행해 우승팀을 가린다.

객관적인 전력상, 아시아 여자핸드볼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한국은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권대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다. 그동안 한국보다 한 수 아래 평가받던 일본이 최근 들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표팀은 20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도 MVP에 선정됐던 센터백 아키야마 나츠미와 라이트윙 후지타 아스카가 일본 여자핸드볼 세대교체의 대표



주자다. 일본은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 한국에 역전패당하며 우승컵을 내줬지만, 전반 한때 6골 차로 앞서가는 등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그동안 아시아 무대를 제패하던 한국에게는 ‘언제든 독주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한국으로선 이번 아시아예선이 더욱 중요하다. 선배들이 그동안 피땀 흘리며 이뤄냈던 올림픽 연속 진출 기록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흔들리던 아시아 최강의 입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대회가 일본에서도 무덤기로 유명한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점, 일본 현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등의 변수와 부담도 극복해야 한다. 물론 대표팀 선수단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길 원치 않는다.

주장 이미경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찝찝함이 남았다. 이제 큰 점수 차이로 이겨야 하는 부분은 없어야 하고 모든 팀과 동등한 위치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어떻게 보면 그때 결승전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던 것이, 우리에게서 오려야 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게 됐다. 선수들 역시도 긴장감을 갖고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더욱 단단해진 선수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스웨덴 여자 대표팀 감독을 지내며 많은 아시아 팀들을 상대했던 시그널 감독 역시 “지난 아시아선수권대회에도 참가했던 팀들의 경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 팀의 경우, 스웨덴 대표팀에 있을 때도 많이 경기하며 특성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조직력이 궤도에 오르며 성장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장단점을 잘 파악해 경기 플랜을 세우겠다”고 했다.

여러모로 많은 것이 걸린 이번 파리올림픽 아시아예선이다. 한국은 과연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과 흔들렸던 아시아 최강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을까. 🇰🇷

### ‘명실상부 에이스’ 류은희의 합류 시기는?

대표팀 명실상부한 에이스 류은희는 소속팀(헝가리 코리) 일정으로 이번 1, 2차 훈련에서 모두 불참했다. 한국에서 류은희는 대체 불가 자원이다. 가뜰이나 중거리 슈트로 득점을 터트릴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대표팀으로선 더욱 류은희의 출전이 절실하다. 최종 엔트리를 구상하는 시그널 감독 머릿속에도 류은희는 포함되어 있다. 그는 8월 12일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다만 올림픽 예선이 시작될 때까지 기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너무 짧다. 시그널 감독은 류은희를 충분히 배려하며, 합류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미 자료나 비디오 클립을 류은희에게 보내주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플레이를 류은희가 준비해주길 바란다. 워낙 경험이 풍부하고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할 거라 믿는다. 류은희가 합류한다면 당연히 전력에는 플러스다. 모든 면에서 강해질 수 있다. 물론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류은희가 팀에 힘을 보태주길 바라고 있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핸드볼 아시아 지역 예선 한국 경기 일정

일시	시간	경기	한국시간
8월 17일(목)	오후 5시	한국 vs 인도	
8월 18일(금)	오후 5시	한국 vs 중국	
8월 21일(월)	오후 5시	한국 vs 카자흐스탄	
8월 23일(수)	오후 3시	한국 vs 일본	





## 적수가 없었다, 그러나 방심도 없었다! 한국 여자 주니어, 퍼펙트 우승

스포츠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극강의 전력을 갖춘 팀이라도 당연히 우승을 차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여자 핸드볼 주니어대표팀은 마치 스포츠에 당연한 것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U19 여자주니어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대표팀은 6전 전승으로 이 대회 통산 16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물론 이조차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탄탄한 실력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였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 핸드볼코리아리거만 8명! 경험과 실력 앞세워 깔끔한 4연승 거둔 예선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이번 대표팀의 15인 명단에는 핸드볼코리아리거를 경험한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시즌 신인상과 챔피언결정전 MVP를 모두 거머쥔 김민서(CB, 삼척시청)를 필두로 최민정(GK), 차서연(RW, 이상 인천광역시청), 김민진(CB), 이혜원(RB, 이상 대구광역시청), 김의진(PV, SK슈가글라이더즈), 오예나(LB, 서울시청), 나지현(LW, 광주도시공사)까지 총 8명의 핸드볼코리아리거들이 포진한 대표팀의 실력과 경험은 주니어 레벨에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오세일호는 탄탄한 전력을 그대로 결과로 연결시켰다. 홍콩-카자흐스탄-일본-쿠웨이트와 함께 예선 A조에 속한 한국은 예선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대회 첫 경기였던 개최국 홍콩과의 맞대결에서는 무려 46-9라는 엄청난 격차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홍콩은 단 1초도 한국에 앞서지 못했고, 균형을 유지한 시간도 1분 54초에 불과했다. 한국은 왼쪽에서 정연우가 슈트 성공률 100%(9/9), 오른쪽에서 김서진이 90%(9/10)를 기록하며 파괴적인 경기력을 뽐냈다. 두 번째 경기인 카자흐스탄전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민서와 김서진이 14점을 합작하며 전반에만 15점의 리드를 벌였고, 이후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가며 44-26으로 완승을 거뒀다.

### 토너먼트에서도 여전한 경기력! 오세일호, 파죽지세로 우승 거머쥐다

가볍게 예선을 통과한 한국의 준결승 상대는 대만이였다. 패하는 순간 짐을 싸야 한다는 토너먼트 라운드만의 부담감이 선수들을 괴롭힐 법도 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대만을 몰아붙였다. 오예나의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앞세워 1분도 되지 않아 선취점을 올린 한국은 김서진-김세진-김민서-이혜원이 고른 득점을 올리면서 빠르게 우위를 점했다. 특히 12-16분대와 18-21분대에 나온 두 번의 4연속 득점으로 18-7까지 점수 차를 벌리며 완벽하게 경기를 장악했다. 대만을 8점에 묶어둔 채 20점대를 돌파한 한국은 전반을 24-10으로 크게 앞선 채 마쳤다. 후반에도 경기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만이 유슈안예의 득점으로 선취점을 올렸지만 한국은 이혜원과 김서진의 3연속 득점 합작으로 곧바로 되갚아줬고, 이후 28-13에서 김의진-차서연-김서진-김민서-이혜원이 무려 6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사실상 경기를 끝내버렸다. 36-16에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마무리하는 정연우의 경기 첫 득점까지 터진 한국은 대만을 최종 스코어 41-2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중국과의 결승전에서도 한국의 경기력은 여전했다. 중국이 1:1 찬스를 놓치고 패스 미스를 남발하는 등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김서진을 앞세워 실수를 놓치지 않고 역습을 가하며 빠르게 점수 차를 벌려갔다. 김민서 역시 침착하게 7m 드로우를 성공시킨 뒤 페이크 모션으로 1:1 찬스를 완벽하게 살리는 등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과시했다. 한국은 전반을 21-7로 여유롭게 앞서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경기 후반 임서영의 중거리포로 30점에 선착한 한국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촘촘한 수비를 펼치며 중국을 34-15로 꺾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6전 전승 퍼펙트 우승이자 이 대회 1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종로 휘슬과 함께 선수들은 코트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만끽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 승리로 상위 5개 팀에 주는 2024년 북마케도니아 세계 여자 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권도 획득했다.





**리그에 대한 소신 발언  
오세일 감독의 대회 총평**

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오세일 감독은 이번 U19 대표팀을 지휘하며 선수들과 함께 16번째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우승을 해서 기쁘다. 큰 부상 없이 돌아온 것도 다행이다”라며 짧은 소감을 전한 오 감독은 아시아권 주니어 레벨에서 한국의 강세가 계속되는 비결을 묻는 질문에 “우선 개인 기량 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오 감독은 “다만 일본과 경기를 치르면서, 일본이 주전과 백업 간의 큰 격차가 없는 팀이라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우리 팀은 주전과 백업 간의 실력 차가 조금

있었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 같다”는 냉정한 평가도 덧붙였다. 오 감독이 뽑은 가장 힘들었던 경기 역시 단연 일본전이었다. 오 감독은 “경기 전 김가영 골키퍼가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미리 준비한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 일본이 끈질기게 추격하는 바람에 점수 차가 잘 벌어지지 않아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결승이었던 중국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다양한 대회를 경험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필요한 플레이를 잘 다져왔다. 아직 기교 같은 부분에서 조금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준비한 것들이 잘 먹혀들어가면서 편하게 경기를 풀었다”는 총평을 내놨다. 다만 오 감독은 “전반전에 점수 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보니 후반전에 선수들이 조금은 느슨해지면서 범실이 늘어난 것은 아쉬웠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한편 오 감독은 핸드볼 코리아리그를 경험하고 온 선수들의 활약에 대

해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기도 했다. 그는 “김민서 정도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선수들이 많았다. 이게 오히려 경기력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고등학교에서 될 때처럼 꾸준히 뛸 수 있었다면 분명 경기력에 도움이 됐을 텐데, 민서를 제외하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실이 된 것 같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진 향후 일정은 없다. 우선 선수단은 해산해서 각자의 팀으로 돌아간 상태고, 세계선수권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 훈련이 진행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을 밝힌 오 감독은 마지막으로 고생한 선수들에게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 핸드볼을 이끌어가야 할 선수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MINI INTERVIEW**

**모에나(서울시청)**

**“더 열심히 노력해 멋진 선수 될 것”**

**Q. 우승 축하합니다! 먼저 우승 소감을 들려주세요!**  
친구들과 후배들이랑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의 감정은 어땠고, 그날은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부자가 울리는 순간 동료들과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모든 팀들이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한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Q. 출전만 하면 우승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압도적인 대회였는데, 이런 부분이 부담감이 되지는 않았나요?**

당연히 승리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은 부담됐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득점을 올릴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Q. 일본전에서 30점 선착을 이끄는 3연속 득점이 경기 흐름을 한국 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했었죠. 당사가 좀 기억이 나요.**

득점을 하고 나서도 어안이 병병했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다만 교체로 들어가서 첫 골을 넣는 순간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고 느꼈고, 이후에도 스스로를 믿고 자신 있게 쓰고 싶은 기술들을 쓰면서 점수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Q. 핸드볼코리아리그를 경험한 것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서울시청에서 뛰면서 언니들과 몸싸움도 해보고, 훈련도 함께 하면서 기술이나 움직임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Q.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또 직접 찾아와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 ‘통한의 1점’ 아쉬움 가득했던 U17 여자대표팀의 결승, 결정적 순간들을 돌아보다

딱 1점이 모자랐다. 아쉬움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두규 감독이 이끄는 U17 핸드볼 여자대표팀이 7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여자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23-24로 졌다. 그야말로 아까운 패배다. 한국은 2005년 첫 대회 이후 2019년까지 우승을 놓치지 않았고 2022년 코로나19로 대회에 불참한 뒤 4년 만에 우승을 노렸다. 대표팀은 중국-카자흐스탄-네팔-대만을 차례로 완파하며 결승에 올랐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대표팀은 이 대회 4강까지 주는 2024년 세계여자청소년대회 출전권은 따냈다. 24일 치러진 대혈투의 결과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되짚어봤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 전반 22:39~24:22 한껏 돌아오른 분위기, 그러나 한 방을 날리지 못하다

한국은 전반 초반 6분 동안 일본을 무득점으로 봉쇄하며 4연속 득점을 터뜨렸다. 일본도 곧바로 나카무라 마미를 앞세워 5연속 득점으로 반격했다. 14분대 이후에는 한국을 5점에 묶어둔 채 나카무라-키오-쥬리나-야스가히라-유이-마츠모토-유메가 골고루 득점하며 9-5까지 점수 차를 벌렸다.

한국도 반격했다. 저력이 대단했다. 20분대 진입 직전 범다빈의 득점으로 추격을 시작하더니, 22분 39초에 김지선의 절묘한 패스를 우측에서 이예서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8-9, 1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코트 위의 선수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고, 벤치의 분위기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본은 실점 직후 공격 과정이 나카무라의 패스 미스로 허무하게 끝나면서 한국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동점과 역전도 시간문제인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공격이 다소 무뎠다. 일본의 침착한 지역 수비에 고전했다. 슈트도 연달아 일본 수비수들의 손끝에 걸렸다. 두 차례 공격을 잘 막아낸 일본은 24분 22초에 중앙을 휘젓는 유려한 패스 플레이 끝에 야스가히라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한국의 추격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확실했던 상승세에 방점을 찍을 1점을 올리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며 한국은 전반 막판 일본에 또다시 연속 실점을 허용했고, 결국 9-12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다.

### 후반 11:11~19:41 임소희와 신채현이 바꾼 경기의 흐름, 그러나...

한국은 후반에도 추격을 이어갔지만, 다 잡았다 싶으면 다시 달아나는 일본의 아슬아슬한 리드는 계속 이어졌다. 한국의 후반 첫 역전을 만든 주인공은 임소희였다. 이날 한국의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던 임소희는 11분 11초, 14-15에서 김지선의 로빙 패스를 받아 깔끔한 마무리에 성공하며 동점을 만들었다. 12분 13초에는 중앙에서 화려한 상체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든 뒤 넘어지며 득점을 완성하면서 역전까지 이끈다.



지 이끌었다. 임소희의 활약으로 경기는 다시 치열한 접전으로 바뀌었다. 두 팀이 앞치락뒤치락 역전을 주고받던 중, 신채현이 존재감을 뽐냈다. 18분 34초에 상대 골문의 왼쪽 구석을 노리는 기습적인 로빙슛을 성공시키며 점수 차를 19-17, 2점 차로 벌렸다. 19분 41초에는 임소희의 온몸을 던지는 수비로 만들어진 속공 기회를 단숨에 살리며 한국이 20점에 먼저 올라섰다. 경기 종료까지는 10분 정도 남은 가운데 임소희와 신채현의 활약이 한국을 우승의 문턱까지 올려놓는 모양새였다.

### 후반 22:18~25:02 1분에 1점씩 내준 한국, 순식간에 역전 허용

그러나 일본의 저항은 거센 정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을 무너뜨렸다. 포문을 연 것은 야스가히라였다. 22분 18초에 나카무라의 등 뒤로 내주는 패스를 받아 빠른 슈트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후 한국의 반격이 좌측에서의 패스 미스로 허무하게 끝났다. 키오가 전광석화 같은 역습으로 득점을 하며 눈 깜짝할 새에 스코어는 19-20, 1점 차로 다시 좁혀졌다.

한국은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다. 경기 내내 활약했던 신채현마저 결정적인 7m스로를 놓칠 정도였다. 일본은 신채현의 7m스루 실패 직후 마츠모토가 엄청난 속도로 우측면 속공을 성공시키며 20-20 동점을 만들었고, 25분 2초에 야스가히라가 또 한 번 나카무라와 중앙에서 좋은 호흡으로 득점을 올리며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22분대부터 25분대까지 1분에 1점꼴로 일본이 득점(22:18 야스가히라, 23:01 키오, 24:04 마츠모토, 25:02 야스가히라)하면서 한국은 조금씩 무너졌다.

### 후반 28:44~30:00 나카오 아이의 결정적 한 방과 최후의 역습 실패

한국은 20분대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팀 공격을 이끈 김지선의 분전으로 계속 일본과 균형을 맞춰갔다. 22-23으로 뒤지던 28분 10초에 신채현이 중앙에서 낮게 깔리는 슈트로 또다시 동점을 만들며 경기는 최후의 한 방을 터뜨리는 쪽이 승리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 방을 터뜨린 쪽은 일본이었다. 신채현에게 실점한 뒤 지공을 이어가던 일본은 28:44초에 좌측에서 야스가히라-키오-나카오 아이로 이어지는 삼각 패스 플레이가 득점으로 연결되며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한국의 마지막 반격은 처절했다. 29분 8초에 키오의 스틸 이후 속공을 간신히 저지했고, 동점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파상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거친 몸싸움을 뚫고 나온 김지선의 두 차례 슈트가 모두 후지와라 히라리 골키퍼의 손에 걸렸고, 이미 시계는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범다빈이 던진 최후의 프리스로마저 골대를 맞고 튀겨나가며 일본의 우승이 확정됐다. 🌟



##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꿈을 꾸는 핸드볼 삼남매 김태규·아영·태웅

유년기 시절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핸드볼만을 바라보며 어엿한 실업 선수의 꿈을 이뤄낸 삼남매가 있다. 나이 차도 위, 아래로 딱 두 살 터울. 핸드볼 리그 최초의 삼남매, SK호크스 레프트백 김태규와 대구광역시청 8년 차 센터백 김아영, 그리고 지난 시즌 갓 실업 무대에 데뷔한 두산 피봇 김태웅이 그 주인공이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야, 넌 어쩔 그리 아직도 어린애 같냐.” “와, 그럼 누나는! 여전히 개구쟁이 같은데. 껄껄.” “어후 지금도 티격태격이나” 투덕거리는 모습이 삼남매 사이를 대신 말해준다. 말만 붙여도 으르렁거리는 사이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툭 던져놓는 말을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사이가 됐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삼남매의 모습이었다.

첫째 김태규는 원광대 시절부터 파워풀한 플레이로 각광을 받아왔던 레프트백이다. 주니어대표팀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어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실업 데뷔 5년 차인 현재는 SK호크스 굳건한 주전 레프트백으로 자리매김했다.

둘째 김아영은 어시스트에 특화된 센터백이다. 2019-2020시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2년 연속 어시스트왕에 등극했을 정도. 실업 무대에 데뷔한 지 어느덧 8년 차로 실업경력만 보면 삼남매 중 가장 많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나름대로 무게를 견디며 어엿한 언니로 성장했다.

막내 김태웅은 지난 시즌 갓 데뷔한 유망주다. 원광대 시절부터 남다른 기량을 뽐내온 피봇이며, 역시 성인 대표팀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

을 쌓고 있다. 형, 누나가 못해본 우승을 데뷔 첫 시즌만에 이뤄본 것도 나름 자랑이면 자랑.

이런 서로를 오빠, 여동생, 누나, 그리고 남동생으로 두면 기분이 어떨까. 코트 밖에서는 국가대표고 유망주도 없었다.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평범한 남매, 그 자체였다.

### ‘티격태격 케미’

#### 현실남매란 이런 것

**Q. 세 선수 모두 <핸드볼코리아>와 인터뷰하는 건 처음입니다. 사진 촬영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한가요?**

**태규** 세 명이 한곳에 모여서 사진 찍는 게 거의 10년 만이에요. 또 성인이 돼서 처음 이렇게 다 같이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한 번쯤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마침 핸드볼코리아에서 연락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영**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모처럼 오빠, 동생이랑 사진도 찍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니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태용** 어릴 때 한번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10년 전 일인데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요. 태규 형 말마따나 지금은 또 모두가 성인이 돼서 만난 거니까 더욱 의미있는 촬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Q. 인터뷰하러 스튜디오에 올 때 어떤 이야기 하면서 왔어요?**

**태규** 태웅이는 의정부에 있어서 지하철 타고 오고 저랑 아영이는 청주에서 제 차를 타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 시간 내내 옆에서 자기만 하던데요. 껄껄.

**아영** 저는 아침일찍 멀리 대구에서 출발했잖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애교미소로) 하하.

**Q. 서로의 성격은 어떤가요.**

**태규** 일단 아영이는 장난기가 많고 어릴 때부터 티를 많이 내려고 해요. 오빠 바라기죠(웃음). 어릴 때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 오빠예요”라며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내는 천방지축이에요. 가끔 진지하지만, 아직은 개구쟁이 같은 면이 더 많아요.

**아영** (태규) 오빠는 언제나 든든하고 아빠 같은 푸근함이 있어요. 말수도 적고 과묵한 편이죠. 그런 반면에 태웅이는 오빠 말대로 어디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철도 안 들었고 어린아이 티를 못 벗어났어요.

**태용** (먼 산 바라보며) 어허. 태규 형은 딱 형과 아빠의 경계선이에요. 어릴 적부터 동생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걱정거리나 고민이 있으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요. 기댈 수 있는 존재죠. (아영) 누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웃음). 제가 보기에 아직 개구쟁이 같아요. 그래도 저보단 착해요. 하하.

**아영** 아, 어딜 봐서... 제가 어리게 보여서 그런가 봐요. 지금도 가끔 태웅이가 더 오빠 같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해요. 하하.

**Q. 아영 선수와 태웅 선수는 티격태격하는 케미가 있네요. 어릴 때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요.**

**태규** 제가 둘이 싸우는 거 중재하느라 고생 좀 했죠. 하하. 둘 다 강하

게 키워야 했는데 제가 너무 오나오나 해줬어요.

**Q. 세 선수 각자 타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한데 모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세 선수는 언제 한 번씩 만나나요?**

**태규** 태웅이랑 저는 경기할 때 그래도 보긴 하는데 아영이까지 이렇게 셋이 다 모여서 본 건 거의 2년 만인 것 같아요. 비시즌이더라도 휴가 스케줄이 각각 다 달라서 집에서 조차 보기가 힘들어요.

**아영-태용** 맞아요. 연락은 단독방도 있고 자주하긴 하는데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본거예요.

**Q. 누가 제일 바쁜가요.**

**태규** 막내죠. 10월 달에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저기 개인적인 시간 보내느라 바빠요. 돈 벌기 시작했다고 어깨도 살짝 올라왔고요. 하하.

**Q. 서로 옷 입는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해요?**

**태규** 세 명 다 편하게 츄리닝 입는거 좋아해요. 음식은 해산물 좋아해요. 특히 연어요. 요즘 많이 먹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영** 저는 굳것질파예요. 너무 잼민이 같은가요. 하하.

**태용** 저는 고기 없이는 못 살아요. 일주일에 고기 거의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백 산골마을 삼남매, 핸드볼 대표선수가 되기까지**

**Q. 이제 핸드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 선수 모두 핸드볼의 고장 태백 출신이에요. 핸드볼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태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덩치가 또래 학생들에 비해 컸어요. 학교 체육선생님께서 간식을 주시면서 운동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셨어

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아영이도 자연스럽게 핸드볼의 매력을 느껴 따라왔고요.

**태용** 저도 누나랑 같은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형, 누나 졸졸 따라만 다니다가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됐어요.

**Q. 경기하는 걸 보다 보면 닳은 점은 없을까요?**

**태규** 포지션이 각각 다 달라서 닳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파워풀한 스타일이고 아영이 같은 경우는 패스 위주로 딱딱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좋아요. 태웅이는 세리머니 잘하는 것 같고. 하하.

**Q. 어떤 세리머니인지 궁금한데요.**

**태규** SK 청주 홈 경기 할 때 태웅이가 유독 골을 많이 넣긴 했어요. 그런데 골 넣을 때마다 우리 벤치 쪽에 와서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저 보라고 한거죠. 중계방송에도 잡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영** 오빠는 오빠대로 본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고 동생은 이제 실업무대에서 한 시즌을 치렀는데 약간 서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돼요.

**태규** 형, 누나 모두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형, 누나 따라 많이 배워야죠

**Q. 같이 운동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영** 다치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안 보게 되더라도. 그 반면에 같은 운동을 하다보니까 공감대가 잘 맞아요. 다만, 부상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태규** 경기장에 가서 동생을 만나면 경기 전에 커피 한 잔 하면서 소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부상이죠. 그리고 제가 만이다 보니까 동생들의 대학 진로 결정 등을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곤 했는데 그때가 왠지 모르케 저 스스로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니까요. 지금은 서로 각자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고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용** 대학교 때부터 코치님들께서 태웅이 너까지 실업에 가면 최초의 핸드볼 삼남매가 탄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너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죠. 실제로 그 목표를 이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뿌듯해요. 다만 불편한 점은 삼남매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되는 면도 있어요. 누군가가 어긋난 행동했을 때, 저희 형, 누나가 피해를 입게 되는거잖아요. 특히 저는 막내여서 더 부담돼요. 이거 꼭 강조해주세요(웃음).

**아영** 애 뭐라는 거예요. 푸하하.

**태규** 근데 태웅이 말이 맞아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모두 피





**김태규**  
SK호크스  
1996년생  
180cm  
원광대 줄  
레프트백

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해요. 평소에도 첫째로서 동생들한테 문제는 없는지 전화도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해요.

**Q. 태웅 선수는 남들은 선수생활에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우승을 데뷔 시즌에 해냈어요. 우승했을 때 당시의 기분은 어땠나요.**

태웅\_ 운 좋게도 좋은 팀에 입단해 데뷔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아마 무대에서 우승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무언가 내가 최고 레벨에서도 우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태규 저는 2018년도 입단해서 아직 우승을 못해보고 준우승만 해봤는데 솔직히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지금의 삼남매를 있게 한  
그 이름 '엄마'**

**Q. 만약 태규 선수가 막내이고 태웅 선수가 첫째였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태규 저는 아무래도 장남이기도 하고 웬만해선 말 못 할 사정과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내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다할 것 같은데요.

태웅 저는 장남으로서 둘 다 이끌고 갈 것 같은데요. 막 고민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런 든직한 첫째 있잖아요.

**Q. 핸드볼을 할 수 있기까지 어머니의 도움이 컸다고 들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태규-태웅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음에도 엄마가 끝까지 저희들을 이끌고 꿈을 지지해주셨어요. 엄마가 아직 젊으신 편인데 이제는 힘든 날이 없어야죠. 지금부터는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위해서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시고 고생하신 걸 이제는 보상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로 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어요.

아영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집도 나가고 엄마 속을 많이 썩였는데 지금 엄마를 생각하면 그때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삼남매가 모두 꿈을 이뤄서 엄마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엄마랑 행복하게 힘든 일 없이 사는 게 목표예요.

**우승 삼남매의 소망  
'코트 위에서 오래오래'**

**Q. 핸드볼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언제 일까요.**

태규 2019년 상무에 있을 때, 대표팀에 발탁돼 올림픽 최종예선에 출전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준우승했었는데 당시 아무도 저희가 그 멤버



**김아영**  
켈러폴대구  
1998년생  
164cm  
황지정보산업고 줄  
센터백



**김태웅**  
두산베어스  
2000년생  
189cm  
원광대 줄  
피봇

로 성적을 낼 거라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태극마크를 달고 준우승이라는 값진 타이틀을 달게 돼 기억에 남아요.

아영 저는 어시스트상을 2년 연속 수상했거든요.(2019-2020시즌과 2020-2021시즌) 3년 연속 어시스트상을 받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욕심을 냈는데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 아쉽게 그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몸이 허락하는 한 다시 한번 그 기록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태웅 지난 시즌 2라운드 첫 경기였던 SK전이 기억에 남아요. 그 전까지 제가 적응을 못하고 상대팀 형들의 기에 많이 눌렸거든요. 확실히 실업은 대학과 다르게 뭔가 벽 같은 게 느껴졌어요. 감독님과 형들이 편하게 하라고 다독여 주셨고 부담을 내려놓고 하자고 했는데 마침 그때 SK전을 계기로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형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더 우쭐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농담). 사실 어렸을 때, 형, 누나가 핸드볼을 잘했다 보니 저는 가려져 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로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경기를 계기로 저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Q. 쉴 때는 주로 무얼 하시나요.**

태규 저는 차 타고 근교에 나가 소소한 것들을 즐기는 것 같아요. 차 트렁크에 미니멀한 테이블이랑 의자를 챙겨 뒹요.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잔하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영 주로 숙소에서 쉬는 편인데, 요즘은 가끔씩 친구 집에 놀러가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와 영화를 보곤 해요.

태웅 저는 잘 먹어요. 금요일 외박이 주어지면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식당을 찾아다녀요. 맛있는 음식 먹고 이번 주 잘 버텼네 하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태규 태웅이가 진짜 잘 먹어요. 얼마 전에 같이 캠핑을 갔는데 고기랑 찌개는 물론 소시지, 라면, 거기에 후식으로 핫도그까지 먹는 거예요. 다들 놀랐죠.

**Q. 태웅 선수는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상무 선배로서 태규 선수가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태규 태웅이가 1년차 시즌을 마치고 군입대 하는 거잖아요. 군대는 어릴 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마침 제 동기인 (연민모)가 상무 분대장을 하고 있거든요. 웬애! 민모한테 잘 말해줄게(웃음).

태웅 어쩌다 보니 입대 소감이 돼 버렸는데 요즘 들어서 왜 사람이 마음의 덕을 쌓는지 알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해야 될 의무잖아요. 전역 날짜도 안 보고 있고요. 그냥 아무 걱정없이 물 흘러가듯이 살려고요.

**Q.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태규 아영이는 몸이 허락할 때까지 운동을 계속했으면 좋겠고, 태웅이는 다른 팀에서 뛰고 있지만 언젠가 한 번쯤 둘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비고 싶어요. 그게 국가대표 유니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웅이는 데뷔 시즌에 이미 우승을 경험했는데 저랑 아영이까지 해서 삼남매 모두가 우승을 경험해봤으면 해요.

아영 우선 몸이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 간혹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 각자 조심하길 바라요. 보양식도 잘 챙겨 먹고.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태웅 우선 삼남매가 핸드볼 실업팀에 가는 꿈을 이뤘잖아요. 어릴 때는 주구장창 발버둥 치면서 운동만 했기에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면서 운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몸 관리 잘하면서 각자의 삶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Q. 끝으로 어떤 핸드볼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지,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지 들려볼 수 있을까요.**

태규 SK호크스 첫 우승멤버가 되고 싶고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다음 시즌에는 저만의 독보적인 플레이를 연마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수로서 제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싶습니다.

아영 아무래도 계속 부상 재활을 하고 있어서 핸드볼에 대한 욕심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옆에 오빠, 동생이 핸드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할 수 있다는 동력을 얻게 돼요. 몸이 허락할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게 목표이고 다음 시즌에 건강한 몸 상태로 코트에 돌아오고 싶어요.

태웅 실업 무대 첫 시즌에 우승을 달성했으니 하나의 꿈은 이뤘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에이스, MVP 같은 것보다도 팀에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



# 가속 붙는 핸드볼 통합리그 2023-2024시즌 출범 잔걸음

2022-2023시즌까지 실업 연중리그인 SK코리아리그로 운영된 국내 남녀 성인 핸드볼리그가 2023-2024시즌부터 통합리그(H리그)로 운영된다.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준비과정을 살펴봤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사진. 대한핸드볼협회



## 프로리그 추진 본격화

### 한국핸드볼연맹(KOHA) 출범

대한핸드볼협회가 2023-2024시즌 프로화를 선언한 것은 지난해인 2022년 4월이다. 당시 핸드볼 프로리그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협회는 약 1년 반동안 프로리그 출범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가 내건 프로화 추진의 명분은 “핸드볼 발전 및 저변 확대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현재 실업 리그를 프로화하는 것이 한국 핸드볼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성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인한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 핸드볼 비전 제시를 통한 엘리트 선수 수급 및 저변 확대 기여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예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2011년 기존 핸드볼 큰잔치를 핸드볼 코리아리그로 바꾸면서 프로화를 목표로 내걸었고, 2013년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를 도입한 것도 프로화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었다. 또 2018-2019시즌부터는 리그를 추준제로 변경해 기존 실내 프로스포츠인 농구, 배구와 시즌 기간을 일치시키기도 했다.

협회는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사단법인 한국핸드볼연맹(KOHA)을 출범시키며 프로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가장 H리그로 명명된 프로 리그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대한핸드볼협회 최태원 회장이 연맹 총재를 겸임하기로 했다. 또 6월 말에는 14개 남녀 실업 구단을 대상으로 프로리그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프로리그 추진 설명회를 통해 한국핸드볼연맹은 그간의 프로리그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연맹과 구단 사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앞으로 각 구단의 연맹 회원사 가입, 단장 협의체 구성, 각종 규약 정립 등을 통해 프로 출범을 위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2023-2024 통합리그(H리그) 개막,

#### 11월 초로 가닥 잡혀

우선 한국핸드볼연맹은 프로 원년인 2023-2024시즌 리그 개막을 올해 11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 올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월 개막해

10월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리그 개막이 다소 늦어졌다. 프로농구나 프로배구 등은 대개 10월 개막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존 코리아리그와 확 달라진 모습을 첫 시즌부터 바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야구, 축구 등 이미 자리를 잡은 국내 프로리그가 시행 중인 홈 앤드 어웨이 첫 해부터 바로 도입하기보다 기존 코리아리그와 마찬가지로 지역 순회 방식의 리그 운영 가능성이 크다.

핸드볼 프로리그는 연맹이 마케팅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추진하고, 구단은 기존 실업 리그처럼 선수단 및 경기 운영에만 집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군 팀이 있는 리그 현실상 각종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기 쉽지 않고, 홈 경기장을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프로농구도 초창기에 중립 경기를 개최했고, 프로배구는 남녀를 묶어 같은 홈 경기장을 쓰게 하는 등 리그 초기에는 다소 과도기가 있었다. 연맹은 8월 중에 통합 리그 경기장으로 쓸 체육관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 경기 유료 입장과 남자

부 신인 드래프트도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팀당 경기 수는 프로 첫 해의 경우 기존 코리아리그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라운드 당 경기 수가 적은 남자부만 한 라운드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첫 시즌의 경우 아시안게임 등의 이유로 개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프로농구가 출범하면서 기존 농구대잔치 시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외국인 선수의 대거 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팀마다 외국인 선수 의무 영입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코리아리그 시절처럼 일부 팀들만 외국인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선수의 기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역시 전국체전과 연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가 전국체전인데 외국인의 경우 전국체전에 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핸드볼 프로리그가 출범하면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남녀 14개 구단 모두 전국체전이 연중 가장 중요한 대회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체전을 병행

하지 않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을 통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

### 승부수로 단진 프로화의 길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

프로 원년 경기 중계를 위한 법인도 설립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미디어 합작 법인을 만든 한국핸드볼연맹은 스포츠 전문 채널 출범을 위한 미디어 법인 '맥스포츠 미디어'를 7월에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채널 등록을 마치면 핸드볼 프로리그인 통합리그 중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스포츠투토 종목이 되는 것도 핸드볼 프로리그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다만 스포츠투토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이 필요한데 리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스포츠투토 종목이 되면 유소년 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핸드볼 저변 확대라는 프로 출범의 취지에도 부합하

게 된다. 현재 스포츠투토 종목으로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가 들어 있으며 프로화 기치를 내건 탁구나 당구도 아직은 스포츠투토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

한국핸드볼연맹 관계자는 “프로 출범 전까지 남은 기간 착실한 준비를 통해 프로 출범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 등 핸드볼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물론 프로 리그가 생긴다고 해서 국제 경쟁력 강화, 저변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종목은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최근 약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저변의 문제를 프로 리그 출범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저변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 경쟁력도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핸드볼이 승부수로 단진 프로화의 길이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국내 스포츠 팬들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기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 한국핸드볼연맹, 새 시즌 타이틀스폰서에 신한카드 선정



신한카드가 새로 출범하는 핸드볼 통합리그(H리그)의 초대 타이틀 스폰서가 됐다. 한국핸드볼연맹은 7월 25일 “올해 11월 출범하는 핸드볼 통합리그의 타이틀스폰서에 신한카드를 선정했다”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는 2024-2025시즌까지 통합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리그 타이틀 명칭과 로고 사용권 등 다양한 스폰서십 권리를 갖는다. 2023-2024시즌 통합리그 공식 명칭은 추후 확정된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오랜 기간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 온 핸드볼 통합리그 출범을 축하하며 첫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합리그가 잘 정착하고 또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6월부터 3년간 대한핸드볼협회 국가대표 선수단을 후원하고 있다.

### 통합리그 출범 앞두고 14개 구단 설명회 개최

한국핸드볼연맹(KOHA)은 2023-2024시즌 통합리그 출범을 앞두고 14개 남녀 실업 구단을 대상으로 프로리그 추진 설명회를 진행했다.

6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통합리그 추진 설명회에는 14개 구단 감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맹은 통합 마케팅을 포함해 그간 프로리그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연맹과 구단 사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핸드볼협회와 연맹 통합마케팅 자회사인 에이치아마케팅 박현 대표는 “리그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핸드볼의 프로화는 필수적”이라며 “유소년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SK슈가글라이더즈 단장 겸 대한핸드볼협회 실업위원장 역시 “핸드볼 근간을 지탱하는 팬과 더불어 성장할 토대가 리그 프로화를 통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핸드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한편, 핸드볼연맹은 지난 6월 7일 남녀 실업 선수들을 대상으로 통합리그 추진 관련 의견 수렴회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약 180명의 남녀 선수가 참석해 핸드볼 통합리그 출범에 대해 높은 관심으로 보였다.



### 통합리그 출범 앞두고 남자부 드래프트 공청회

한국핸드볼연맹은 핸드볼 통합리그 출범을 앞두고 남자 대학실업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2024시즌 도입 예정인 남자 드래프트 실시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7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강원대, 경희대, 원광대, 위덕대, 조선대, 충남대, 한국체대 등 7개 남자 대학팀 지도자·학부모와 두산, 인천도시공사, 하남시청, SK코크스 등 4개 구단 관계자,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한국핸드볼연맹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맹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 드래프트 세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 flex(플렉스), 한국핸드볼연맹 공식 파트너십 체결

국내 유일의 HR 플랫폼 기업인 flex(플렉스)가 2023-2024 핸드볼 통합리그의 HR부문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한국핸드볼연맹이 도입할 예정인 flex는 ‘새로운 HR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근태관리, 급여정산, 전자계약, 전자결재(워크플로우), 목표관리, 리뷰, 채용 등 채용부터 퇴직까지 기업 HR의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HR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이다. flex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함께 11월 출범 예정인 한국핸드볼연맹은 초기 조직 운영에 flex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또한 flex의 HR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표준 연봉계약서, 윤리서약서, 평가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통합리그 지원 부문의 디지털화가 조기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은 이외에도 flex와 통합리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flex는 한국핸드볼연맹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협회 및 연맹, 구단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최근 flex는 핸드볼을 비롯해 K리그, e스포츠,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다.

## 안지환 본부장에게 듣는다!

# 통합리그 어디까지 진행됐나



대한핸드볼협회는 2022년 4월 프로화 추진을 깜짝 선언했다. 실업리그로 진행해온 기존의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중장기적으로 프로리그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통합리그(H리그)로 전환, 겨울 대표 실내스포츠로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였다. 2023년 11월 핸드볼 통합리그의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한핸드볼협회 안지환 운영본부장은 성공적인 리그 출범을 위해 가장 앞에서 뛰고 있다. <핸드볼코리아>는 안지환 운영본부장과 특별 인터뷰를 통해 핸드볼 프로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진단하고, 향후 계획과 목표 등도 자세히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서호민 기자, 한국핸드볼연맹

**Q. 프로화 추진을 선언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다.**

우선 스토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202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핸드볼협회장에 재선임된 최태원 회장님께서 핸드볼 중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30'으로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리그 선진화'였다. 최태원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1년간 리그 선진화 방안을 고민했다. 2022년 2월 회장님께 리그 선진화 방안을 보고드리고 프로리그 추진과 통합마케팅 추진을 확정했다. 대한핸드볼협회 이사회와 총회의 보고를 거쳐 2022년 4월 핸드볼 프로리그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진수 수석부회장)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2022년 10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협회장, 이사회, 총회 보고를 거쳐 2022년 12월에 통합마케팅을 담당할 협회 자회사(법인명 에이치아이마케팅)를 설립했다. 올해 6월에는 통합리그를 전담하는 한국핸드볼연맹(KOHA, Korea Handball Association)을 대한핸드볼협회 산하 단체로 설립했다. 연맹 총재는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님이 겸임하고, 프로화를 지향하는 통합리그 명칭은 'H리그'로 확정했다.

**Q. 통합리그 출범을 앞두고 6월 28일 14개 구단을 대상으로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구단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나?**

우선, 통합리그 추진위원회에서 3~4월에 전체 14개 구단을 방문해 통합리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구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6월 7일에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현장 및 온라인으로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6월 28일에는 각 구단 관계자(프런트, 감독)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와 다양한 방법의 소통을 통해 통합리그를 준비하는 과정과 계획을 공유했고 구단과 선수의 의견도 들었다. 7월 27일에는 남자실업팀 드래프트 시행과 관련하여 남자실업팀, 남자대학팀 감독, 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진행했다.

**Q. 협회 산하에 연맹이 새로 창설됐다. 통합마케팅 자회사인 에이치**

**아이마케팅의 역할이 궁금한데?**

통합리그의 전반적인 마케팅을 총괄한다. 타이틀 스폰서와 후원업체 등을 섭외하는 부분도 통합마케팅 자회사가 담당한다. 7월에는 리그 실행을 담당할 전문 대행사도 선정 완료했다. 티켓 판매 대행사, 방송사와 함께 8월 중 전국을 돌며 경기장별로 적합 여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가적으로 미디어 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한국핸드볼연맹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동 투자해서 합작 법인 '맥스포츠 미디어(Maxports Media)'를 6월 1일 설립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출범을 위한 두 기관의 콜라보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축구와 핸드볼이 상호 협력을 통해 각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맥스포츠 미디어는 신규 스포츠 채널 등록을 위해 8월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채널 등록을 마친 후 K리그와 올 11월 새로 출범하는 통합리그 중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Q. 한국형 싱글 엔티티(Single Entity) 모델이라는 표현이 대중에게는 쉽게 이해되기 힘들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맹이 구단 및 리그의 모든 프로퍼티(스폰서, 라이선싱, 미디어)를 망라한 업무를 마케팅 자회사가 통합 관리하면서 해외선수 수급 및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 등을 추진하는 형태다. 각 구단은 기존처럼 선수단과 경기 운영에만 집중하고 돈을 버는 것은 전문 회사가 대신 한다는 뜻이다. 다른 종목과 달리 핸드볼은 관공서, 공사, 공단에서 운영하는 팀이 많은 것을 고려한 판단이다. 통합마케팅은 아직 다른 종목 단체에서 시도한 전례가 없다. 통합리그가 최초이기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Q. 경기 수와 진행 방식은 기존 핸드볼코리아리그 때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이 있나.**

2023-2024리그의 경우 남자부는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와 비교하면) 4라운드에서 5라운드로 경기 숫자가 늘어난다. 여자부는 변함없이 3라운드로 진행할 계획이다. 초창기에는 각 구단의 마케팅 인력이나 경기장 시설이 100% 뒷받침하기 어려워 홈&어웨이 형태가 아닌 연맹이 전체 경기의 운영을 맡아 각 팀의 연고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Q. 타이틀 스폰서, 지역 연고, 네이밍 스폰서 문제는 언제쯤 매듭지어질 계획인가.**

통합리그 출범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 타이틀 스폰서로 신한카드가 이미 결정됐다. 7월 24일 신한카드와 한국핸드볼연맹이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세부적인 리그 명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와 한국핸드볼연맹은 공동마케팅을 통해 핸드볼이 많은 팬에게 사랑받는 인기스포츠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 통합리그 HR부문 공식 파트너사로 플렉스(flex)가 참여했다. 통합리그는 초기 조직 운영에 flex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flex의 HR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표준 연봉계약서, 윤리서약서, 평가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통합리그 지원 부문에서의 디지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후원 파트너사를 계속 모집해 통합리그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합마케팅 취지에 따라 2023-2024시즌부터는 연맹의 수익



일부분을 각 구단에 분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Q. 계획은 거창하지만, 프로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프로리그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팀이 다수인 실업팀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프로화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2023-2024시즌부터 기존 리그를 업그레이드해 지자체팀과 기업팀이 동시에 참여하는 통합리그 방식으로 출범을 결정했다. 팀들은 전국체전 출전 가능 여부에 관심이 가장 많다.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한핸드볼협회가 대회 요강을 정하기 때문에 실업팀이 출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단 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2023-2024시즌의 경우 여자부는 경기 수가 기존과 같고 남자부는 1라운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단의 비용이 발생하는 홈&어웨이 없이 연맹이 모든 경기를 주관하고 어느 정도의 분배금도 각 구단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비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통합리그를 준비하는 한국핸드볼연맹과 대한핸드볼협회, 그리고 구단이 삼위일체를 이뤘을 때 비로소 통합리그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1월 30일부터 통합리그 추진위원회, 협회, 외부전문가, 실업구단 프런트-감독 등 10명으로 구성된 리그 운영TF 회의를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며 경기 일정, 각종 규정 등 통합리그 준비를 위한 주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된 사안들을 구단들과 공유하며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각 구단 방문 설명, 선수 대상 의견 수렴, 구단 대상 설명회 등으로 핸드볼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Q. 각 구단의 준비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내 핸드볼 팀 특성상,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기

업 팀들이 섞여 있다. 올해 출범하는 통합리그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기 운영을 연맹이 주관하고 각 구단은 리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수와 감독은 팬들을 즐겁게 하는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다수의 구단이 팬 초청 미팅을 진행하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통합리그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Q. 팬이 없는 프로리그는 성공하지 못한다. 당연히 탄탄한 팬층 확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팬을 경기장으로 유입하는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오는 자발적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맹은 팬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팬들을 대상으로 팬 마케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2021-2022시즌과 2022-2023시즌 등 2년에 걸쳐 해마다 한 차례씩 진행했다. 이를 통해 리그 전반적인 운영과 팬 서비스에 대한 팬들의 생각을 들었다. 연맹 차원에서도 팬들의 귀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 구단 홍보 활동, SNS 콘텐츠 개발 등 팬 확보와 리그를 홍보하기 위한 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프로리그로서는 후발주자인 만큼 콘텐츠, 이벤트 역시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다. 어렵지만 리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나갈 숙제이다.

**Q. 지속 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한 사후 전략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 지.**

통합리그가 출범 이후 리그의 가치를 높여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3년 내로 스포츠투토 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우리 통합리그의 안정성, 적합도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리그가 돼야 한다. 협회와 연맹, 구단, 선수, 팬 등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리그의 가치를 높이고 청렴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는 향후 프로리그로의 정착을 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토토 종목에 핸드볼이 포함된다면 토토 기금을 바탕으로 벌일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우선 유소년 사업에 투자할 기금이 늘어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또 리그 흥행을 위해 한일 인터리그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과 정규리그 때 상호 방문 경기를 진행하거나 우승팀끼리의 교류전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핸드볼 리그가 활성화된 유럽과의 교류를 확대해 통합리그를 선진리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심판을 최소 한 컵 운영할 예정이다.

**Q.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FA, 연봉 제도 등은 팀과 선수에게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인데.**

외국인선수 제도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연맹이 주관하는 트리아아웃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는 올해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여자부 드래프트는 2012년부터 시행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FA 제도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단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샐러리 캡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합리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과 세칙 등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Q. 모든 것이 처음이다 보니 당연히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프로리그를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타 종목에 비해 늦게 출발한 만큼 기존의 야구, 축구, 배구 등 대표적인 프로스포츠 종목들을 잘 참고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싶다. 좀 더 구체화한다면 축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는 분리되어 있는 듯 하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핸드볼도 한국핸드볼연맹을 대한핸드볼협회의 산하 단체로 6월 초 설립했고 연맹 총재도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이 겸임해 두 단체의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했다. 향후 통합리그가 활성화됐을 때 두 단체가 공동의 힘으로 파이를 키우나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Q. 통합리그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핸드볼의 가치를 더 높이고 한국 핸드볼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리그 출범이 필요하다. 통합리그 전환은 거울철 대표 실내스포츠 도약을 통한 경기력 향상,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 엘리트 선수 수급, 저변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업 선수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대학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들도 핸드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선 앞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이 소통해야 하고 의견 역시도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 나 역시 실무자의 위치에서 향후 프로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리그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 통합리그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핸드볼 판 자체가 커지고 스포츠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유의미한 변화가 찾아올 거라 기대한다. 🙏



안지환 대한핸드볼협회 운영본부장(56)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SK텔레콤 입사 후 2005년부터 스포츠단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아마추어 후원(대한펜싱협회, 박태환 선수 후원 및 전담팀 운영), 프로골퍼 후원(최경주, 박인비, 최나연 등), SK텔레콤오픈 골프대회 등을 담당했으며, 프로게임단 T1 사무국장 직도 역임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SK그룹 수펙스추진협의회에서 스포츠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다. 2016년부터는 SK-HTF로 자리를 옮겨 대한핸드볼협회 운영본부장과 한국핸드볼전체단 사무국장으로서 대한핸드볼협회장 실무 보좌 업무를 수행하며 핸드볼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4월부터는 핸드볼 프로리그 추진 실무무모도 하고 있다.



## 장대비도 못 막은 핸드볼 열기, 뜨거웠던 태백 제20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연일 비가 쏟아지던 7월 초, 장마에도 태백은 핸드볼 열기로 가득했다. 제20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가 강원도 태백시 일대에서 7월 4일부터 16일까지 펼쳐졌다. 총 93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남자 초등부 19개 팀, 여자 초등부 16개 팀, 남자 중등부 17개 팀, 여자 중등부 13개 팀, 남자 고등부 15개 팀, 여자 고등부 10개 팀, 남자 대학부 3개 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여고부는 아시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일정으로 인해 7월 4일부터 9일까지 먼저 진행됐고 타 중별은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대한핸드볼협회

### 여자부 휘경 강세 속, 경희대 19년 만의 우승 쾌거

태백산기 대회는 핸드볼 아마추어 대회 중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04년 첫발을 댄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이하 태백산기 대회)는 올해로 정확히 20년째를 맞아 의미를 더했다. 20년의 시간동안 역사와 전통, 경쟁력도 쌓였다. 핸드볼 스타를 꿈꾸는 선수들의 등용문이다. 이제 갓 핸드볼 공을 잡기 시작한 초등학생부터 프로 무대 데뷔를 앞둔 졸업반 대학생까지. 전국에서 핸드볼 좀 한다는 유망주들이 태백에 모인다. 올해 역시 성공적이었고, 화려했다. 총 93개 팀, 12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내뿜었고 그 안에서 우승의 기쁨, 패배의 아쉬움을 맛봤다. 대회 결과부터 살펴보자. 남자 초등부에선 박지호가 이끈 동부초가 복수초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승전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동부초는 박지호가 10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치며 정상에 올랐다. 소년체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복수초를 꺾었기에 우승의 기쁨은 두 배가 됐다. 여자 초등부는 영원히 정상에서 군림하고픈 황지초가 구월초를 19-16으로 무너뜨렸다. 접전이 이어졌지만, 허서현, 정혜진, 박혜진의 삼각 편대가 고르게 활약했다. 황지초는 지난 4월 중별선수권, 5월 소년체전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여초부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명승부가 펼쳐졌던 남자 중등부에선 진천중이 우승했다. 지난 3월 중, 고등대회 결승에서 격돌했던 진천중과 천안동중의 재대결이었다. 천안동중도 저력을 발휘했지만 진천중의 뒷심이 더 강했다. 극적이었다. 31-31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종료 3초를 남기고 극적인 역전 골을 터뜨렸다. 진천중은 3월 대한핸드볼협회장배, 4월 전국중별선수권대



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여자 중등부에선 전통의 강호 휘경여중이 인천 만성중을 완파하고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여중부 최강자임을 과시했다. 태백산기 대회 최고 하이라이트로 주목을 받았던 남자 고등부, 여자 고등부에선 전북제일고와 휘경여고가 각각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전북제일고는 대전대성고를 40-28로 완파했다. 문진혁의 원맨쇼가 빛났다. 문진혁은 결승전에서 무려 21골을 터트리며 팀의 우승에 앞장섰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전북제일고는 지난 3월 중, 고등대회에 이어 올해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명승부가 펼쳐졌던 여자 고등부에선 휘경여고가 우승을 해냈다. 휘경여고는 홈팀이자 디펜딩챔피언 황지정보산업고를 접전 끝에 32-30으로 꺾으며 정상에 올랐다. 태백산기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남자 대학부에서는 경희대, 강원대, 조선대 총 3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희대가 우승, 2004년 1회 대회 이후 19년 만의 대회 정상에 올라서게 됐다. 경희대는 대회 마지막 날 대학부 풀리그 최종전서 이민준(7골), 김기유(5골) 등 주축들의 고른 활약으로 강원대에 28-23으로 역전승을 거둬 2연승으로 우승했다. 🏆

### 제20회 태백산기 전국핸드볼선수권대회 결과

구분	남자 초등부	여자 초등부	남자 중등부	여자 중등부	남자 고등부	여자 고등부	남자대학부
우승	동부초	황지초	진천중	휘경여중	전북제일고	휘경여고	경희대
준우승	복수초	구월초	천안동중	만성중	대성고	황지정보산업고	조선대
최우수선수	김재준(동부초)	박혜진(황지초)	나연우(진천중)	조은율(휘경여중)	문진혁(전북제일고)	박수정(휘경여고)	이혁규(경희대)



## 5년째 맞은 우수선수선발 측정, 진지하고 치열했던 현장 속으로!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국제경쟁력 강화와 핸드볼 저변확대를 위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체력과 체력, 경기력, 심리테스트 등을 거쳐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들은 유럽 전지 훈련을 떠나 핸드볼 강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우수선수선발 제도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첫째 전체 23개교에서 338명의 참가 인원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해를 거듭해 어느덧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할 정도로 그 덩치를 키웠다. 덩치만 큰 것이 아니다. 그 내용물도 놀랄 만큼 변했다. 협회는 단순히 본 제도를 홍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꽤 많은 부분에서 시스템 개선을 이뤄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 인바디부터 서틀런까지...

#### 참가 선수들 “고되지만 보람차요” 한 목소리

우수선수선발제도에는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핸드볼코리아>가 2023년 우수선수선발 체력측정(이하 체력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태백을 찾았다. 협회는 지난해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체력측정을 실시했지만 전국 순회 측정 방식의 행정적인 소모와 장비 손상, 측정 환경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올해 다시 기존 방식대로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를 활용해 선수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체력측정을 진행했다.

1차(체격+체력+심리), 2차(핸드볼 경기력 측정)를 합산해 각 포지션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28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올해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태백 장성초등학교에서 열렸고, 남중부, 여중부, 남고부, 여고부 등 4개 중별에 걸쳐 총 57개 교에서 54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대한핸드볼협회 핸드볼아카데미 권세정 팀장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수현 박사가 우수선수선발 체력측정을 총괄한 가운데 원활한 측정을 위해 10명의 전문 측정관이 참여했다.

측정 종목은 크게 체격, 체력, 심리 세 가지로 나뉘었으며 체력 파트에서는 근지구력(팔굽혀펴기), 심폐지구력(20m 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구르기), 순발력(제자리 높이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볼 스피드), 민첩성(틀러코스터 런, 골키퍼 시각반응), 스피드(20m 스프린트), 협응성(볼 핸들링)에 대한 측정이 이뤄졌다.

현장을 찾은 참가 학생들은 마치 체대입시 실기에 임하는 수험생 마냥 진지한 자세로 측정에 임했고, 측정 결과에 따라 여기저기서 환호와 탄식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체력측정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또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실제 몇몇 학교 학생들은 이번 체력측정을 위해 틈틈이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 연습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체력측정의 백미는 마지막 순서인 20m 왕복오래달리기 서틀런. 서틀런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자 이곳저곳에서 선수들의 원성이 터졌다. 하나둘씩 낙오하는 선수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100회 이상 구간을 왕복하며 튼튼한 체력을 자랑하는 이들도 여럿 보였다. 중학생임에도 무려 109바퀴를 뛰며 서틀런 최강자에 등극한 만경중 서경환(16) 학생은 “학교에서 연습했을 때는 원래 더 잘 뛰었는데.”라고 숨을 헐떡이며 “2학년 후배들이 잘 뛰어줘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 또, 3학년인 내가 동생들보다 먼저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끈기를 갖고 끝까지 뛰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전북제일고 김성민(17) 학생은 볼 스피드 항목에서 시속 98km까지 스피드건에 찍혀 탄성을 자아냈다. 김성민 학생은 “원래 볼 스피드가 빠른 편은 아니어서 크게 기대는 안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중학생 때부터 올해까지 우수선수선발 체력측정에 세 번째 참가하는데 의미있는 기록을 남겨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측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 차례 이상 경험해본 이들이



## 핸드볼아카데미 우수선수선발 기술력 검증 OK 유럽대학스포츠과학회(ECSS Paris 2023) 발표

지난 7월 중순,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핸드볼아카데미 야심차게 기획한 우수선수선발제도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대학스포츠과학회에 발표하고 소개한 것.

이를 발표한 우수선수분과장 박수현 박사에 따르면, 유럽대학스포츠과학회는 스포츠 연구 분야에서 유럽 지역 내 큰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다. 박 분과장은 우수선수선발사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체력측정 항목의 근거와 기준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학회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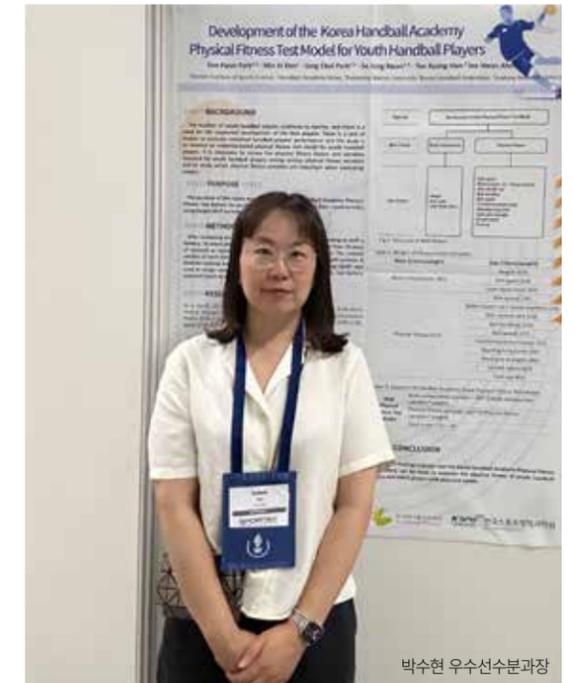
박 분과장은 “우수선수선발 체력측정 항목들이 전문가들의 자문과 델파이&AHP 기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도 모든 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과연 이 항목들이 핸드볼 선수에게 적합한 항목인지를 물었을 때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그래야 해외 학술 교류를 할 때도 타 국가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논문으로도 출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분과장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재작년부터다. 작년에 우수선수선발과 관련한 논문을 제출했고 올해 승인을 받아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몇몇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체력측정항목 중 롤러코스터런과 볼 핸들링 항목을 관심있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다. 핸드볼 종목도 2, 3개 정도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과 훈련 효과 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우수선수선발제도는 국제 학회에서도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박 분과장은 “이번 학회 발표를 발표한 삼아 논문으로도 출판할 예정이다. 하나의 근거가 되는 셈”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우수선수선발 제도는 아이들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상

당히 좋은 사업이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터득하다 보면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빠르게 깨닫게 되고 스포츠과학적인 부분에서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조기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협회, 해당 관계자들이 꾸준히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우수선수분과장

다. 이들에게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대전체고 고재은(17) 학생은 “중학생 때 한번 측정해보고 고등학생 때는 처음 측정해보는데 확실히 순발력이 늘고 있다는게 느껴졌다”며 “팀원들 모두가 우수선수에 선발되기 위해서 측정을 앞두고 학교에서부터 서로 파이팅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다. 그렇게 노력했던 과정들이 너무 멋있고 또 결과로 나와 뿌듯하다. 우수선수 7명에 최종 선발되고 싶은 욕심도 있다. 포지션이 골키퍼인데 먼 미래에 삼척시청 박미라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성민 학생 역시 “3번째로 참가하는건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신체 능력의 성장세를 이 지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좋다. 올해는 최종 상위 7명에 합격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 선수데이터, 올해부터 직접 확인한다 ...해마다 성장하는 우수선수선발 플랫폼

핸드볼아카데미는 2021년 우수선수선발 체력측정에 참가한 선수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우수선수 선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선수의 체력측정데이터와 각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누적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 속도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생애주기별 측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측정 데이터를 모아 이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선수 육성 및 관리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플랫폼 웹 사이트와 모바일 버전이 출시돼 그동안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핸드볼아카데미 우수선수분과장 박수현 박사는 “3년 전부터 플랫폼 개발을 기획했고 올해 비로소 완성이 됐다. 연말에 2023년 우수선수 선발자들이 발표되었지만 발

표되기 전에 자신의 체력측정 결과와 그동안의 이력 등을 웹 사이트,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협회는 협회대로 데이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지도자들도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회가 야심차게 기획한 우수선수선발 제도는 매년 보완점 등을 개선해 시행 5년차를 맞은 현재, 대표적인 영재키움 프로젝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시에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 지도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해야한다’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심어지고 있다.

권세정 팀장은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데 내년 6년 차가 되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10년 째가 되면 이제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체력측정을 실시한 선수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6년 차를 맞는 내년에는 개근상 이벤트를 기획해보려고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핸드볼 선진국이 몰려 있는 유럽에서는 이미 공정한 선수 선발 및 관리를 위해 선수의 경기 기록, 메디컬 테스트, 부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널리 활용하고 있다.

권 팀장 역시 이점을 강조하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선수의 수준과 기량이 나오게 되고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 (우수선수선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순순히 되다 보면 먼 미래에는 대표팀 선수 선발 역시도 데이터를 기준 삼아 선수를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



# 선수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책임진다



## 광주시공사 신동진 승무원

운동선수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 늘 훈련장, 경기장, 숙소를 포함한 다양한 곳을 오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컨디션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선수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선수단 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이다. 승무원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팀의 핵심 자원이다. 올해로 7년째 광주시공사 핸드볼 팀의 든든한 발이 돼주고 있는 신동진 승무원을 만났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Q. 광주시공사 핸드볼 팀에 7년째 몸담고 계십니다. 광주시공사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요.**

운전 경력이 30여 년 정도됩니다. 원래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광주시공사 핸드볼 팀에서 전담 버스 기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거기서 뽑힌 뒤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원래도 스포츠나 핸드볼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고속버스 회사에 근무할 때, 마라톤과 산악자전거 동호회를 운영했을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운전사라는 직업이 운동을 게을리 하면 안 돼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죠. 핸드볼 같은 경우는 과거 '우생선'의 주인공들이 속해 있었던 광주시청의 화려한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Q. 지금은 비시즌 기간인데도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센터)에 계시네요. 비시즌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

**내시나요?**

선수들이 시즌 준비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준비해요. 버스 정비도 하고, 제 체력과 컨디션도 관리하면서요. 선수들이 훈련할 때 함께 있는 편이에요. 비록 제가 지도자는 아니지만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연습 중에 공이 밖으로 나가면 제가 공을 주워준다든가 하는 일들이요.

**Q.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팀에 대한 애착도 커질 것 같아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군대 생활 3년을 빼고는 늘 이곳에서 지내왔어요. 전국 각지 선수들이 이 지역의 팀 소속이 되어 화합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선수단은 전체가 하나되는 모습이 저에게도 보여요. 특히 시즌 중에 우리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승리를 챙길 때는 저에게도 가장 보람찬 순간이에요.

**Q. 승무원이라는 자리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팀 운영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죠. 그런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종목 선수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버스가 신형 버스로 교체됐는데, 불필요한 좌석 수를 줄여서 좌석별 추가 공간을 확보했어요. 선수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버스를 탔을 때 마치 안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선수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광주시공사에서 7년 간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매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맨 처음에 이곳에 와서 유석진 감독님과 선수단 전체가 함께 고생했던 순간들부터, 이후 서지열-오세일 감독님이 부임하시면서 점점 선수단이 하나가 돼 가는 과정들이 모두 떠올라요. 자신감이 부족했던 선수들이 점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느껴 가는 과정을 확인했죠. 어느덧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지가 7년째네

요. 우리 팀에는 좋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Q. 팀을 위해서나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세일 감독님이 이 팀에서 5년째 고생하고 계십니다. 체육관이나 숙소 같은 환경이 아직은 조금 열악한 부분도 많아요. 우리 팀만 쓸 수 있는 체육관이 없고 여러 종목이 돌아가면서 써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에 제약이 좀 있거든요. 이 종목은 단체 운동이니까, 체육관을 못 쓰면 결국 할 수 있는 훈련이 한정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프로리그로 전환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기대도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개선을 노력해주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특별히 없어요. 다만 7년간 일하면서 광주시공사의 우승을 아직 못 본 게 조금 아쉬워요. 우승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열심히 하면 머지않았다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동고동락하는 선수들과 감독님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 선수들과 감독님은 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 부천시체육회 G-스포츠클럽의 ‘플뿌리 핸드볼’ 씨앗 뿌리기

창단 1년 만에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한 초등학교 팀이 있다. 게다가 학교에서 조직력을 다지는 엘리트팀이 아닌, 여러 초등학교 선수들이 모인 독립 스포츠클럽 팀이 거둔 성적이었다. 11명의 소수정예지만 선수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골키퍼는 태백산기에서 방어율 전체 1위에 올랐고, 또다른 선수는 초등학교 꿈나무 대표로 선발됐다.

단시간에 이렇듯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부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클럽팀, G-스포츠클럽이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 즐거기에 우리는 강하다!

#### 11명이 만드는 기적

<핸드볼코리아>가 G-스포츠클럽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부천남중학교 체육관이었다. 이승택 코치의 지도 속에 선수들은 우렁찬 기합 소리를 내며 훈련에 임했다. 선수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마치 친구들끼리 신나게 공놀이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즐거움과 진지함이 공존하는 훈련 현장에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도 함께 있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을 주고받으며 훈련을 이어가는 사이, 이승택 코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부천시체육회 소속으로 현재 팀 전임코치를 맡고 있는 이 코치는 “원종초 핸드볼부가 학교 사정으

로 해체되면서 부천 내 중·고등학교 핸드볼 팀은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난 2022년 G-스포츠클럽을 만들게 됐다. 학생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경기도교육청 G-스포츠클럽 사업에 부천시핸드볼협회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운 좋게 선정되면서 지금의 팀이 탄생했다”고 창단 계기를 들려줬다.

G-스포츠클럽 선수들은 평일엔 공부와 핸드볼을 병행하고 주말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 훈련은 주 5회,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진행된다. 하루 훈련 일과는 수비 시스템 훈련으로 시작해 패스워크와 슈팅을 가다듬는 훈련으로 마무리된다. 무리한 훈련 대신 효율적인 스케줄을 통해 어린 나이 선수들이 핸드볼을 놀이로 즐기면서 기본기를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코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고된 훈련보다는 놀이 형식으로 핸드볼과 친해지게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과 놀이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 코치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선수들은 해맑은 표정으로 공을 주고받으며 놀이 같은 훈련을 즐기고 있었다.

현재 팀 총 정원은 11명이라고 밝힌 이 코치는 G-스포츠클럽의 최근 성과를 묻는 질문에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공식 경기에 출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 나갔는데, 거기서 엘리트 팀들을 꺾으면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태백산기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예선에서만 3승을 거두기도 했다. 8강에서 천안서초에 아쉽게 3점 차로 지긴 했지만, 엘리트 팀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선수들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팀뿐 아니라 선수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코치는 “골키퍼 최원준은 태백산기에서 초등부 방어율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레프트윙 이도현은 최근 초등학교 꿈나무 대표 선수로 선발되기도 했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 ‘핸드볼에 자부심 느껴’

#### 엘리트 체육의 길 바라보는 아이들

G-스포츠클럽이 이렇듯 단시간에 엘리트팀 못지않게 경기력을 끌어올릴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 코치는 “부천 인근의 여러 초등학교로 직접 선수를 스카우트하러 다닌다. 체육 수업 시간에 뛰는 것을 좋아하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에게 스카우트를 제안한다”며 선수 수급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음을 밝혔다. 선수들의 학부모들 역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 코치는 “엘리트팀이 아님에도 우리 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

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의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 있던 이도현 선수의 어머니는 “도현이가 핸드볼을 시작하는지 1년 2개월 정도가 됐다. 그 동안 도현이는 물론이고 나까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가 핸드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크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임을 밝혔다.

부천시체육회 G-스포츠클럽은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을 만들겠다는 목표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고 있었다. 이 코치는 “현재 엘리트 체육 입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선수만 5명 이상이다. 또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엘리트 체육 입문을 생각 중이다”라며 엘리트 체육으로의 전환율이 거의 100%임을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의 보람됨과, 핸드볼이라는 종목 자체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이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 같다”고 많은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코치는 “지금 유니폼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엘리트 팀과 비교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훈련 장비 같은 부분에서의 지원이 조금 더 있다면 아이들이 핸드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바라는 점을 솔직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팀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하고 선수들에게 고맙다. 또 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들과 체육관을 제공해주시는 부천남중부천공고에도 감사드린다. 매일 같이 훈련하면서 늘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며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친 이 코치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 종례를 진행하며 이날의 훈련을 마무리했다. ⚽



### MINI INTERVIEW

#### 도원초 6학년 최원준(GK)



#### Q. 팀의 장점을 소개해주세요!

우리 팀은 모두가 훈련 때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예요. 물론 훈련은 힘들지만, 함께 하다보면 너무 재밌어서 힘든 걸 잊게 되거든요!

#### Q. 엘리트 체육을 도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형을 따라서 핸드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제 실력도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 Q.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고, 롤모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강점은 상대 공격수의 손동작을 보고 방향을 예측해서 공을 막는 거예요. 롤모델은 아직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코치\_ 김동욱 선수라고 해.) 김동욱 선수요(웃음).

#### Q.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코치님에게 인사 한마디 해볼까요?

늘 열심히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힘드실 텐데 항상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시는 코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 '항저우 AG 금메달' 정조준 유럽 전지훈련 떠나**

유럽 전지훈련을 위해 남자국가대표팀이 7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 2022년 5월 선임된 홀란드 프레이타스 감독이 이끄는 남자국가대표팀은, 약 한달 간의 1차 훈련을 인천선수촌에서 진행했다. 짧은 휴식 후 다시 소집된 대표팀은 지난 7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 훈련을 이어갔다. 이번 전지훈련 명단에 총 22명의 선수가 선발됐다. 김동욱, 강전구, 조태훈, 김연빈, 이성민(이상 두산)과 박영준, 하민호, 진유성(이상 인천도시공사)까지 22-23 SK핸드볼코리아 리그 우승, 준우승팀 소속 선수들이 주를 이뤘다. 리그 사상 최초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낸 하남시청에서는 박광순과 정재완, 신재섭이 이름을 올렸고, 장동현, 김기민, 이현식, 하태현, 박세웅(이상 SK호크스), 구창은(충남도청), 이요셉, 박재용(이상 국군체육부대)까지 리그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유럽에서 함께 담금질에 들어간다. 한국체대 소속인 이창우, 송제우까지 총 22명의 선수가 유럽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올린다.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 남자 국가대표팀은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과 10월 올림픽아시아예선전을 정조준 한다.



**삼척시청, 팬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워크숍**

삼척시청이 6월 28일 삼척시민체육관과 씨스포빌 리조트에서 팬 30명을 초청해 여자 핸드볼 실업팀 최초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통합우승팀인 삼척시청은 시즌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내걸었던 우승 공약을 실천했다. 삼척시청 선수단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워크숍 기획 및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삼척시청 핸드볼 선수단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라이브방송으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팬 30명을 선정했다.

워크숍은 SK핸드볼코리아리그 장내 아나운서인 박수미 아나운서가 진행했으며, 선수들과 함께하는 핸드볼 교실 등 레크리에이션과 미니게임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또, Q&A 진행으로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고, 선수단이 준비한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진 촬영과 사인회를 진행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삼척시청 이계청 감독은 “이번 워크숍은 시즌 내내 최선을 다해 뛰어난 선수들과 언제 어디서든 팀을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잊지 못할 추억”이라면서 “앞으로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핸드볼선수단, 지역 꿈나무 재능기부 활동**

경남개발공사 핸드볼선수단이 7월 19일 경남 지역 초·중·고 핸드볼팀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세 개 학교(금산초·진주동중·경남체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남체고 핸드볼구장에서 진행됐다. 경남개발공사 김현창 감독을 비롯한 11명의 선수단은 이날 스트레칭 방식부터 포지션별 멘토링, 핸드볼 관련 미니게임 등을 몸소 시범을 보여주며 학생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했다. 김현창 감독은 “지역 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꿈나무 선수들에게 희망을 줘 기쁘다”며 “앞으로도 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개발공사 핸드볼선수단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과 2023-2024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선수단, 준우승 기념 짹짹 팬미팅**

부산시설공단 여자 핸드볼선수단이 7월 2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09호 회의실에서 팬 50명을 초청해 공사·공단 실업팀 최초로 팬미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선수단은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포스트시즌에서 준우승 달성에 큰 힘을 보탠 팬 성원에 보답하고자 공단과 선수들이 직접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기획·제작에 참여한 선수들은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부산시설공단은 팬미팅에 참가한 팬들에게 선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선물했다.



김은아 선수를 통해 핸드볼에 깊게 빠져버린 팬으로서 온아 선수 그리고 같은 팀 (김)민서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한 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읽었어요! 챔피언결정전 MVP 두산 이한솔 선수에 관한 스토리도 흥미로웠습니다. 여자대표팀 헨리크 시그넬 감독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지도자로서 가치관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더불어 음식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조명하는 코너인 코트 사이드 코너도 매달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녀 대표팀 모두 파리올림픽 예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기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핸드볼코리아 꾸준히 지켜보며 관심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림Kyulim>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7·8월호(vol. 65)에 대한 의견을 9월 1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푸마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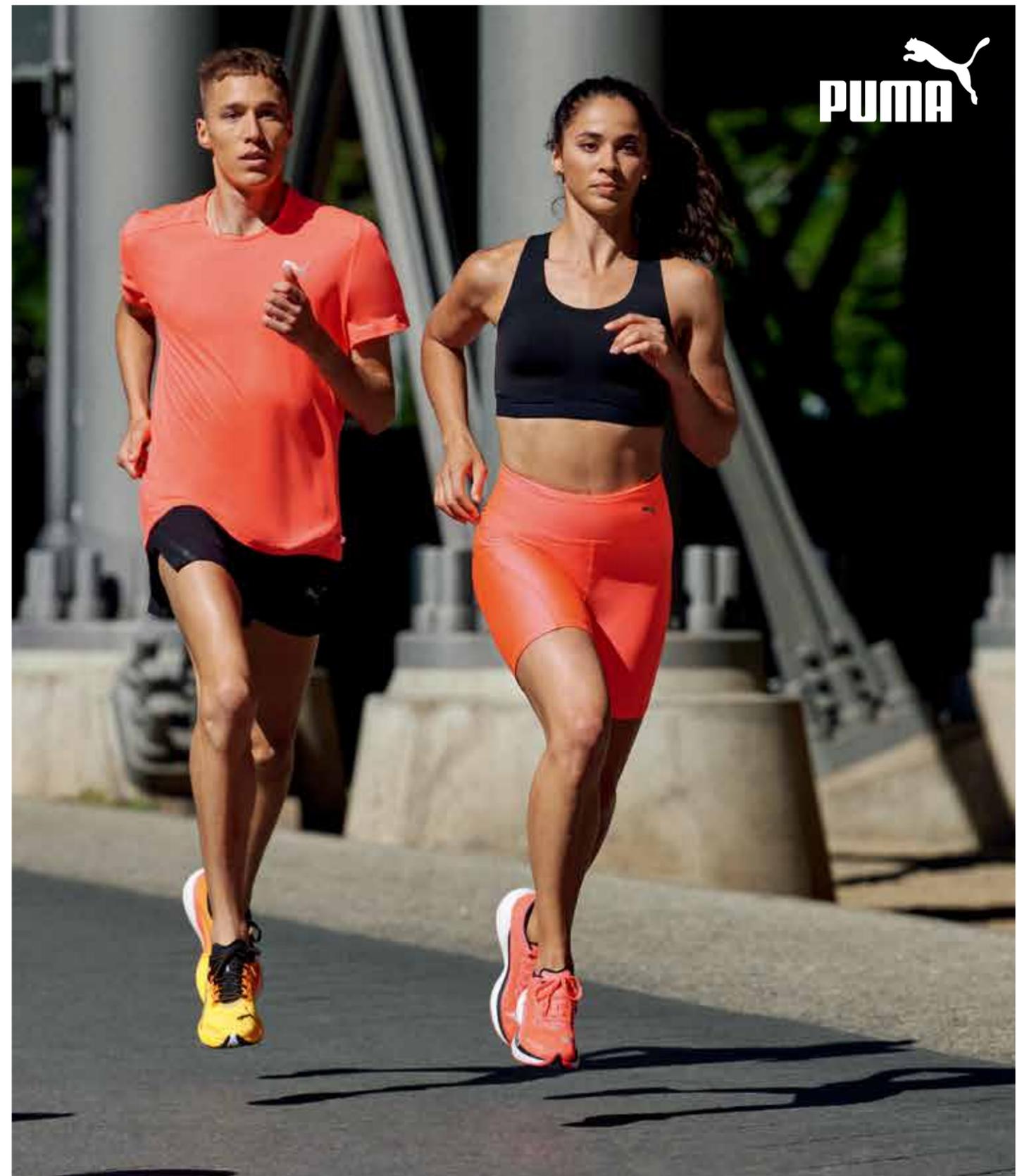
**molten**  
For the real game

#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믹스스포츠  
070-4367-1482



## **NITRO** ELITE

푸마의 혁신적인 미드솔 기술, 나이트로 폼  
뛰어난 경량성과 반응성, 쿠셔닝,  
그리고 높은 에너지 효율성 제공



DEVIATE NITRO 2



DEVIATE NITRO 2 WNS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 우리 아이들의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힘든 여름을 보내지 않도록  
전국 369개 지역사회 아동센터의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금융그룹

